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을 한해 프로그램 운영 방향

전당 지향성 · 관객 요구 반영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기관인 만큼, 올해는 일회성 공연을 벗어나 전당의 지향성과 관객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 대표는 "각종 조사에서 발표되는 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 지표와 문화예술 관람률 최저 수준을 개선하는 데 전당이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실현을 위해 전당은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 감상 기회 제공 ▲전시장 활성화 및 예술교육 상상화 ▲도민들이 즐겨 찾는 힙터·휴식 공간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당은 예술·공감·소통의 가치와 공연·전시·교육의 각 장르별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통합 브랜드 프로그램인 '아트 숲'을 운용하기로 했다.

아트 숲의 추진방향은 수익사업보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기여 및 공헌할 수 있는 기획사업 위주로 전개 될 예정이다.

"거장전"은 예술성을 강화한다. 섭외가 어려운 수준 높은 아티스트 첼리스트 미사 마이스키(9월), 모스크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11월)를 선점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당은 취약한 클래식 관객 개발을 위해

▶ 통합 브랜드 '아트 숲' 운용

수익보다 지역예술 기여하는 기획사업 위주로 전개키로

▶ 예술성이 강화되는 '거장전'

첼리스트 미사 마이스키 등 선점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인디 아티스트의 대중성 확장

신설되는 'art stage 소리+' 중량급 예술가들로 구성

'클래식 시리즈'를 신설하고, 신자아 바이올린 리사이틀(11월)을 공연한다.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 및 작품을 조명하는 '포커스온'에는 성민재&조운성 듀오 콘서트(4월), 자용&스테판 피 재키브(6월), 노부스 콰르텟(8월)이 관객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개성 있는 인디 아티스트들의 무대이자



전당의 대표 기획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art stage 소리'는 다양한 공연으로 특화시켜 선보이며, 신설되는 'art stage 소리+'는 중량급 인디 아티스트들로 구성해 대중성을 확장한다.

인디영화와 인디콘서트가 결합된 '예술 공작소'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1인 혹은 듀오 형태로 소극장 명인회에서 열리는 '언플러그드 콘서트'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전당은 가족 프로그램 강화 요구에 따라 '키즈월드' 기획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전당 내 시설을 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오전 11시 작은 음악회 '브런치 콘서트'와 문화사회 콘서트 '작가와와 만남'을 신설전시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운영 내실화 전당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전당 신입 원장에 오태수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신입 원장에 오태수(64·사진) 백제예술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회(이사장 박순중 전주시 부시장)는 최근 원장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정된 오태수씨를 '제2대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신임 원장은 최근 가진 원장 공개경쟁 모집에서 서류와 면접을 최고 득점으로 통과해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고, 신임조치, 경력사유 검증을 거쳐 이날 제18차 이사회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 신임 원장은 오는 23일 김승수 전주시장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가며, 이날부터 오는 2019년 1월 23일까지 2년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리고와 원광대 미술교육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출신의 오 신임 원장은 지난 1980년 KBS에 입사해 PD와 방송콘텐츠 주간, 전주방송총국장, 시청자센터장 KBS미디어 감사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백제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신임 원장은 KBS광주방송국 근무 당시 '남도국악', '문화가 산책', '남도 사람들' 등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TV프로그램을 제작, KBS우수작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고, '이산가족찾기' 방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美', '한국 재발견', '우리 문화유산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 제작, 한국언론학회 공로상 수상 등을 통해 '문화전문 PD'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문화 전문가로, 이후 전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서로는 '잃어버린 한국의 미를 찾아서, 이보다 아름다운 길'과 '산행산문집 '흔자 걷는 길'', 논문으로는 '방송박물관 건립의 현실적 추진 방안' 등이 있다.

오 신임 원장은 "정체성 한계, 인지도 부족, 시설 활용도 미흡, 운영 내실화 부족 등을 전당이 처했던 당면 과제로 보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전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범, 1심서 징역 4년

법원 "국내 미술시장에 큰 혼란 초래 전문적 방법으로 조직적 사기 저질러"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81)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위작(偽作)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검찰의 착오가 있었다"며 "전체 8개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서명위조의 법정형은 높지 않는데, 사기죄의 법정형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등 일당은 대단히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춰 사기를 저질렀다"며 "국내 미술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의 명예와 미술계의 신뢰성에도 깊은 상처를 입혔다. 개인이 저지른 사기 범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C씨는 A씨·B씨와 달리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며 "증거에 관해 합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B씨의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81)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7일 이우환 화백이 위작 논란을 빚고 있는 작품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해자 겸 고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양화를 전공한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창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3점

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골동품 판매사 C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와 B씨가 위작한 그림 3점을 13억 2500만원 상당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화백은 1936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획기적 미술 운동인 모노파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 도쿄 타마미술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남았다. /뉴시스

이정은 '왕이 귀환하다' 소설문학상 선정

한국소설가협회회는 제42회 한국소설문학상에 이정은(78·사진)의 '왕이 귀환하다'를 선정했다. 수상작 '왕이 귀환하다'는 조쪽 세계내 유아랑과 뜰마니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인간의 가치를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가 이정은은 1991년 월간문학에 소설 '부활기' 당선으로 소설가로 데뷔했다. 장편소설 '너의 이름을 쓴다', '신화는 계속된다', '블루인 러브' 등을 출간했으며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만우박영준문학상, 들소리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뉴시스



전북도-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공동으로 2017년도 전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성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시·군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사업을 지향한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풍부한 감각과 공동체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도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설 등이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사업의 지원절차 및 연간 사업운영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뉘며 오는 19일은 무주 최북미술관에서, 20일은 남원문화원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23일에는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9일>

<h4>▷ 쥐띠</h4> <p>48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화가 생기니 매사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60년생: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타인과 의견 충돌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 될 듯. 84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타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p>	<h4>▷ 소띠</h4> <p>49년생: 공식적인 일은 줄이나 사적인 일은 불리한 운이다.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우 움직일 것.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p>	<h4>▷ 호랑이띠</h4> <p>50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놀라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4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86년생: 무리한 욕심은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하니 주의하라.</p>	<h4>▷ 토끼띠</h4> <p>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작은 것에 만족함이 편안하다. 63년생: 계획적으로 타인을 대하면 상대가 알게 된다. 75년생: 매사 몸과 마음을 곁혀히 하고 인성시켜 대처할 것. 87년생: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 신경전이 예상되는 운.</p>
<h4>▷ 용띠</h4> <p>52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나중에 편안해진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라.</p>	<h4>▷ 뱀띠</h4> <p>5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사람의 편을 들면 상황이 악화되니 주의하라. 6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발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p>	<h4>▷ 말띠</h4> <p>54년생: 식복이 있는 운이니 모임이나 식사약속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8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주저하지 말고 결행하라. 90년생: 작은 노력을 해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	<h4>▷ 양띠</h4> <p>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조극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동료와 일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79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능력을 발휘해라.</p>
<h4>▷ 원숭이띠</h4> <p>56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68년생: 지나친 욕망을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80년생: 자신의 목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92년생: 정신적으로 방향할 수 있는 운이다.</p>	<h4>▷ 닭띠</h4> <p>5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지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다. 81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93년생: 사소한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운이니 조심하라.</p>	<h4>▷ 개띠</h4> <p>46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보라. 58년생: 고독함을 즐겨야 하는 운이다.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운. 기관지계통의 질환을 조심하라. 8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새로운 시작은 금물.</p>	<h4>▷ 돼지띠</h4> <p>47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급금적 외출은 삼가라. 59년생: 계획하지 않은 일은 진행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 83년생: 90퍼센트를 이루었다고 해도 10퍼센트에서 실패할 수 있다.</p>